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경란 · 이명희*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Body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Appearance Elevation Attitude

Kyung-Ran Jeon · Myoung-Hee Lee*

Dept. of Apparel Science & Environmental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3. 1. 2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desire for aesthetic surgery and clothing attitude of female with their body satisfaction, need, and self-esteem. Subjects were 813 females of 10's to 40's living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Gongju City, Chungchungnamdo. Results from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correlation of desire for aesthetic surgery with body satisfaction was negative so that female satisfying one's body shape didn't want to have aesthetic surgery. However, aesthetics and sexual attractiveness of clothing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body satisfaction. It was also shown that the need and self-esteem of female affected directly on the desire for aesthetic surgery and the pursuit of clothing aesthetics. Women with higher need for exhibition and dominance were not only concerned about the elevation of their appearance through their clothing but also recognized the value of modifying their appearance through aesthetic surgery. Women with higher self-esteem were interested in the elevation of their appearance through clothing, but the other hand, they showed negative attitude toward modifying their appearance via aesthetic surgery. This result revealed the fact that women with higher self-esteem had a tendency to keep the traditional sense of value and as a result, showed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aesthetic surgery.

Key words: body satisfaction, need, self-esteem, desire for aesthetic surgery, clothing attitude; 신체만족도, 욕구, 자아존중감, 성형요구도, 의복태도

I. 서 론

신체외모(physical appearance)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판단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할 뿐 아니라 과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장을 한다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는데 높은 관심을 갖게 되고 취약한 신체부위를 성형하기도

한다. 성형수술은 정상적인 여성이 더 아름답게 되려는 자기 과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태도로 인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모향상행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기화 되어 작용하면서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 측면이 외면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 외모에 관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의복에 관심이 많았고(박찬부, 1980), 지배욕구가 높은 사람은 의복을 개성표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문화자, 1985). 또한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이나 유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심소연, 강혜원, 1983).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체형, 얼굴 등에 대한 신체만족도나 다양한 외모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의복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인수록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게 되고(Tucker, 1982), 신체외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의복을 착용할 때는 피해의식과 자신감의 결여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김미영, 1982; 양계민, 1993).

의복은 개인의 외모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신체수정이나 신체부가물의 한가지로 작용된다(Roach-Higgins, Eicher & Johnson, 1995). 또한 의복은 자아의 외적 표현으로서 개인의 자아개념과 같은 내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인지도를 높이는데 활용되어 왔다(강혜원, 1999). 따라서 성형과 의복착용으로 인한 외모개선은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개인의 신체만족도와 욕구,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특성과 성형 및 의복과 같은 외모관련태도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의 성형요구도 및 의복태도를 포함한 외모향상태도와 신체만족도, 욕구, 자아존중감과 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향상태도의 차이를 알아보며, 외모향상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성형이나 의복착용과 같은 외모향상태도를 파악하여 외모에 대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며 의복사회심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개인이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이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개인은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외모의 가치판단을 향상시키려 한다(Kaiser, 1997).

신체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Secord와 Jourard(1953)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이 도구를 개발한 이래로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Cash, Winstead와 Janda(1986)는 미국의 성인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34%, 여성은 38% 정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한다고 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김양진, 강혜원, 1992)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불만족하는 신체부분은 59.2%였으나, 만족하는 신체부분은 40.8%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편이었으며, 사자부와 얼굴이 신체불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다(이미숙, 2000). 황진숙(1998)의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중요성과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이 의복추구혜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부분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혜택을 통하여 신체만족을 유지 또는 고양시키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형수술과 신체만족도와의 관련 연구에서 신체만족 집단 11.7%가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반면 신체불만족 집단의 7.4%만이 성형수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형수술 경험이 많은 집단이 신체만족을 느끼는 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신체만족 집단의 경우 전체대상자의 30.8%가 성형수술을 원하는 반면에 신체불만족 집단의 경우는 44.2%가 성형수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김은주, 2001).

신체적 만족도는 신체기능 및 외모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의복행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관련연구에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만족도도 높았으며 좀 더 여성적인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였다(Richards

& Hawthorne, 1971; 이희남, 1985). 중년여성의 경우도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에 만족하였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은 자신의 신체 및 의복에 더욱 만족하였다(이영운, 강혜원, 1982; Mclean, 1978).

2. 성형요구도

성형요구도는 미가 사회적 장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으며,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매력적인 사람은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며, 더 사교적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유익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지난 몇년 동안 성형에 대한 요구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다.

차진희(1994)의 연구에서는 체형변형에 대한 태도를 성형, 교정, 체중조절, 극단적 변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보다 여자가 여성의 외모변형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었으며, 자아개념은 외모변형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건강 및 외모관심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두형, 장충현(1994)의 연구결과에서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65% 이상이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시술되는 미용성형수술의 대부분은 쌍꺼풀, 안면윤곽교정술, 유방성형수술, 지방흡입수술 등이 있으나 고치고 싶은 신체부위는 눈, 코, 입의 순서로 나타났다. 김은주(2001)의 연구에서는 가장 성형 받고 싶은 부위는 1위가 얼굴(53%)로 이마, 광대뼈, 턱 윤곽 교정 등으로 작고 가름한 얼굴을 위한 얼굴윤곽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2위가 지방흡입술(27%) 이었고, 3위가 가슴관련 수술(13%)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이상적 미인으로 여겨졌던 이목구비가 예쁜 여성보다는 작은 얼굴과 균형 잡힌 날씬한 몸매를 중요시하는 최근의 사회적 현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의복과 심리적 특성

의복은 신체의 연장으로서 개인의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의복을 통해 신체모습을 표현하며 신체를 향상시키려 한다(Kaiser, 1997). 따라서 의복은 개인의 내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외모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향상 수단이 되는 의복태도의 연구변인으로 의복의 심미성, 유행, 성적매

력성을 택하였다.

심미성은 아름다운 의복이나 장식을 자신의 신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착용하여 외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Humphrey, Klaasen과 Creekmore(197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미의 이상형은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미지와의 비교로 인하여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한다(Lennon & Rudd, 1994). 김미경(1990)의 연구에서는 성취 및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은 의복의 장식성을 중요시하였으며, 강경자(1994)의 연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의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였다. 여대생은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심미성이 더 높았으며(이은주, 1982), 주부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심미성을 더 중요시하였다(이명희, 1987; 이인자, 1978).

의복의 유행 추구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의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충족시키려는 상반된 욕구를 동시에 내포한다. 사람들은 독특하고 눈에 띄는 새로운 의복을 채택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되며, 유행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한 자아를 보호 받으려 한다(이은숙, 서정희, 1999). 정하신, 이인자(1983)의 연구에서는 성취, 지배,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은 의복디자인 및 유행에 대한 흥미가 높았으며, 강혜원(1974)의 연구에서 남녀대학생은 외향적인 성격이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고,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유행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과시욕구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이나 유행에 관심이 높아 남의 눈에 잘 띄는 의복으로 과시하려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과시욕구가 높은 사람은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행에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금실, 강혜원, 1978). 계층, 소득, 의복비 등은 유행추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요인이었으며(노미경, 1983; 이화연, 1987; Tigert, Ring & King, 1976; Behling, 1985), 정치적 가치와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의복 유행을 중요시하였다(이남순, 1989; Creekmore, 1963). 유행혁신자 집단은 비혁신자 집단보다 신분상징성을 더 중요시하였고(권순기, 1990),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보다 유행몰입이 낮은 편이었다(김효경, 이명희, 1992).

의복의 성적매력성은 이성을 의식하여 신체의 아름다

다움을 들어내며,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신경을 쓰는 태도를 의미한다. 인간은 이성을 의식하고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복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발전시켰다. 선행연구(Creekmore, 1974)에서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여성일수록 의복을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특히 이성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의 성적 매력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남향성이 낮고 동조성이 높은 성격 특성을 나타냈다(이명희, 1983).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고자 의복을 사용하려 하며(Hurlock, 1976), 이성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이나 머리 모양을 따르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김희창, 1998). 안귀덕(1992)은 한국 청소년의 여가 활동과 일탈행동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이성 교제시 자신의 용모와 옷차림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욕구측정은 황정규(1968)가 제작한 표준화검사 중에서 과시, 지배, 성취욕구의 3개 변인을 선택하여 각각 7문항씩 총 21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선행연구(이은실, 2000)에서 신뢰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9문항의 Cronbach의 α 신뢰도는 .81이었다. 신체만족도는 얼굴윤곽, 눈, 코, 입술, 턱, 가슴, 등, 허리, 배, 엉덩이, 다리, 키, 몸무게, 체형의 신체 14부위의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외모향상태도는 성형요구도와 의복태도를 포함하였다. 의복태도는 선행연구(이명희, 1983; 이은실, 2000; Creekmore, 1963; Tigert, Ring & King, 1976)에서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성에 관한 문항을 택하여 5단계 Likert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요인분석으로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전경란, 2002) 심미성 3문항, 유행 4문항, 성적 매력성 6문항으로 분류되었으며 세 변인의 α 신뢰도는 각각 .59, .71, .81이었다.

성형요구도는 선행연구(차진희, 1994)에서 10문항을 택하였고, 본 연구에서 2문항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단계 Likert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코성형, 입술성형, 턱성형, 치아교정, 점·흉터 제거수술, 쌍꺼풀수술, 유방축소수술, 유방확대수술, 체간부(허리, 아랫배) 지방흡입술, 상반신(가슴, 어깨, 팔) 지방흡입술, 하반신(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지방흡입술, 문신, 유방축소수술, 유방확대수술을 포함하였다.

성형요구도는 주성분분석과 varimax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고유치 1 이상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얼굴성형, 요인 2는 지방흡입술, 요인 3은 문신 및 유방성형이라 명명하였다. 세 요인의 누적변량은 56.89%였으며, 각각의 α 신뢰도는 .73, .87, .62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연령과 사회계층을 조사하였

<표 1> 성형요구도의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요인 1> 얼굴성형	
코성형수술	.69
입술성형수술	.65
턱성형수술	.64
치아교정	.62
점·흉터 제거수술	.57
쌍꺼풀성형수술	.50
변량(%)=36.54	누적변량(%)=36.54
고유치=4.38	α 신뢰도=.73
<요인 2> 지방흡입술	
체간부(허리, 아랫배) 지방흡입술	.21
상반신(가슴, 어깨, 팔) 지방흡입술	.20
하반신(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지방흡입술	.30
변량(%)=10.48	누적변량(%)=47.02
고유치=1.23	α 신뢰도=.87
<요인 3> 문신 및 유방성형	
문신	.81
유방축소수술	.75
유방확대수술	.59
변량(%)=9.87	누적변량(%)=56.89
고유치=1.18	α 신뢰도=.62

다. 사회계층은 주관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9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상류층 및 하류층의 분포가 매우 적고 대부분 스스로를 중류층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자료분석시에는 상층과 중의 상층까지를 상류층으로, 중의 중층을 중류층으로, 하층과 중의 하층을 하류층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1년 5월에 실시되었다. 피험자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10~40대 여성 813명이므로서, 편의표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 나타났다. 김은주(2001)의 연구에서는 1위가 쌍꺼풀수술, 2위가 코수술, 3위가 지방흡입수술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의학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방흡입술에 대한 성형요구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TV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신체상은 인기연예인의 모습을 통해 강조되며, 여성들이 날씬한 외모를 추구하게 되어 지방흡입술에 대한 성형욕구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유방교정수술에 대하여는 본 조사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9.7%가 유방확대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여성 체형을 이루는 미적 기준에 따라서 유방확대수술로 가슴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향상태도의 차이

연령에 따른 외모향상태도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령에 따라 성형요구도 모든 변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얼굴성형의 요구도는 30대 이하가 40대보다 높았으며, 40대는 대체로 다른 연령층보다 성형요

IV. 결과 및 논의

1. 신체부위별 성형요구도

신체부위별 성형요구도의 평균과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점·흉터 제거수술이었고, 2위가 치아교정, 3위가 하반신 지방흡입술, 4위가 쌍꺼풀 수술

<표 2> 연령에 따른 외모향상태도의 차이

연령		10대 (n=211)	20대 전반 (n=262)	20대 후반 (n=93)	30대 (n=187)	40대 (n=60)	F
성형요구도	얼굴성형	2.53(a)	2.61(a)	2.46(a)	2.44(a)	2.22(b)	3.28*
	지방흡입술	2.46(ab)	2.63(a)	2.27(bc)	2.42(ab)	2.04(c)	4.20**
	문신 및 유방성형	1.50(b)	1.69(ab)	1.69(ab)	1.78(a)	1.65(b)	4.05**
의복태도	심미성	3.49	3.48	3.45	3.37	3.32	1.58
	유행	2.61(a)	2.69(a)	2.70(a)	2.60(a)	2.37(b)	2.98*
	성적매력성	3.02(ab)	3.16(a)	3.09(ab)	2.93(b)	2.77(c)	6.52**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표 3> 사회계층에 따른 외모향상태도의 차이

사회계층		하류층 (n=219)	중류층 (n=444)	상류층 (n=150)	F
성형요구도	얼굴성형	2.58	2.48	2.48	1.27
	지방흡입술	2.45	2.42	2.55	.73
	문신 및 유방성형	1.65	1.64	1.75	1.46
의복태도	심미성	3.38(b)	3.43(b)	3.58(a)	4.19*
	유행	2.47(c)	2.62(b)	2.88(a)	16.45**
	성적매력성	2.97(b)	3.00(b)	3.22(a)	8.24**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구도가 낮았다. 지방흡입수술은 20대 전반이, 문신 및 유방성형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복 심미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유행과 성적매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복의 성적매력성은 20대 전반이 가장 중요시하였고 4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유행과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성적매력성이 더 높았던 것은 이 시기가 결혼의 시기이므로 옷차림에서 이성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계층에 따른 외모향상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형요구도는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오늘날 여성의 성형요구도는 계층과 관련 없는 보편적인 태도라고 풀이된다. 사회계층에 따라 의복태도의 세 변인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류층은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성이 모두 중류나 하류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행은 상류층이 가장 중요시하였고 그 다음은 중류층이었고 하류층이 가장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류층은 경제적 여유가 많으므로 패션 경향을 잘 파악하고 새로 유행하는 의복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3. 신체만족도, 욕구 및 자아존중감과 외모향상태도와의 상관관계

신체만족도, 욕구 및 자아존중감과 외모향상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신체만족도와 성형요구도는 부적 상관이 있어 신

체 여러 부위에 만족하는 여성은 성형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만족도는 의복의 심미성 및 성적매력성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성취욕구는 문신 및 유방성형과 부적 상관을 보여,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문신, 유방 교정수술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지배욕구는 모든 성형요구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과시욕구는 성형요구도 중에서 얼굴성형 및 지방흡입술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일수록 외모에 대한 성형요구도가 높아 얼굴을 성형하거나 지방흡입술로 체형을 조절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성형요구도의 모든 변인과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요구도가 낮았다. 이는 이경희(1992)의 연구에서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모든 욕구 변인은 의복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성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성취, 지배,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들은 의복의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였다. 즉 욕구가 높은 여성일수록 매력적으로 의복을 입으려 하며 유행하는 의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취 및 지배욕구가 강할수록 의복흥미가 높다고 한 정하신, 이인자(198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의복의 아름다움이나 유행,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였다.

4. 외모향상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여성의 신체만족도, 욕구, 자아존중감, 인구통계적

<표 4> 신체만족도, 욕구 및 자아존중감과 외모향상태도와의 상관관계

(N=813)

신체만족도 · 욕구 · 자아존중감 외모향상태도		신체만족도	성취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성형요구도	얼굴성형	-.230**	.032	.142**	.165**	-.137**
	지방흡입술	-.318**	.013	.108**	.145**	-.094**
	문신 및 유방성형	-.080*	-.118**	.086*	.029	-.129**
의복태도	심미성	.080*	.341**	.313**	.330**	.259**
	유행	.053	.140**	.298**	.315**	.099**
	성적매력성	.077*	.274**	.382**	.466**	.163**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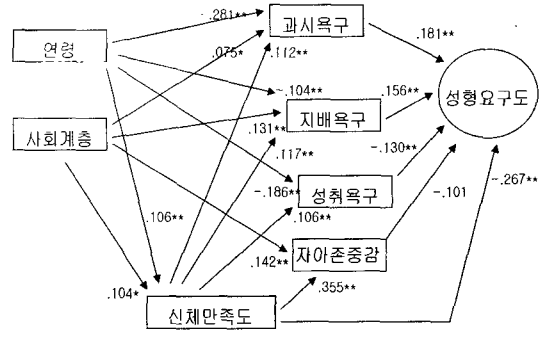
<표 5> 외모향상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813)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²
성형요구도	신체만족도	-.267	-7.604**	R ² =.143 F=26.910**
	과시욕구	.181	3.865**	
	성취욕구	-.130	-3.118**	
	지배욕구	.156	3.432**	
	자아존중감	-.101	-2.663**	
의복 심미성	성취욕구	.167	4.063**	R ² =.166 F=40.071**
	과시욕구	.136	2.948**	
	자아존중감	.133	3.808**	
의복 유형	지배욕구	.094	2.084*	R ² =.136 F=31.803**
	과시욕구	.248	5.268**	
	사회계층	.134	4.039**	
의복 성적매력성	성취욕구	-.093	-2.282*	R ² =.226 F=118.242**
	과시욕구	.381	9.146**	
	지배욕구	.126	3.025**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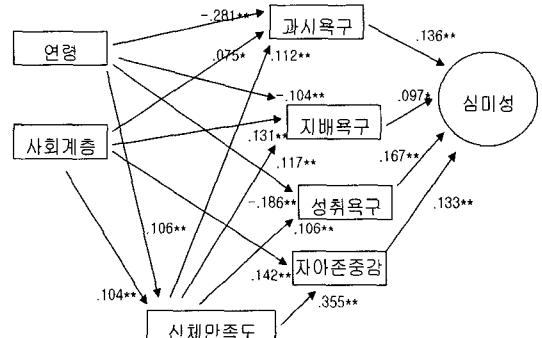
변인이 성형요구도와 의복태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그림 1~4>와 같다. <표 5>에서 독립변인은 연령, 사회계층, 신체만족도, 과시, 지배,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의 7개 변인이었다.

성형요구도에는 신체만족도($\beta = -.267$), 과시욕구, 지배욕구, 성취욕구($\beta = -.130$), 자아존중감($\beta = -.101$)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5개 변인의 설명력은 14.3%였다. 즉 신체만족도와 성취욕구,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성형요구도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그림 1>을 볼 때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를 통하여 과시, 지배,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형요구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신체만족도는 과시, 지배,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들 4개 변인을 통하여 성형요구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연령은 신체만족도, 과시욕구, 지배욕구를 통하여 성형요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성취욕구를 통해서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층은 과시 및 지배욕구를 통해 성형요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신체만족도를 통해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p<.05, **p<.01

<그림 1> 성형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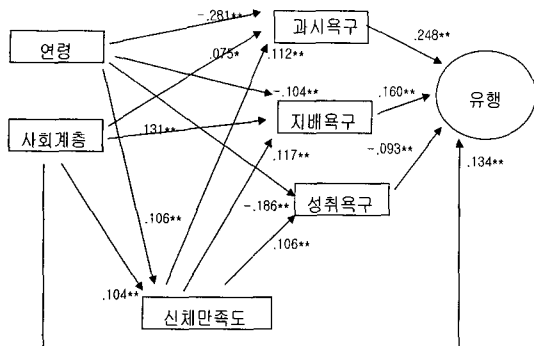


*p<.05, **p<.01

<그림 2>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표 5>에서 심미성에는 성취, 과시, 자아존중감, 지배욕구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6.6%였다. 즉 욕구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미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경(1990)의 연구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장식성을 중요시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심미성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연령은 과시, 지배, 성취욕구와 신체만족도를 통하여 심미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회계층은 과시욕구,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를 통하여 심미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연령과 사회계층에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3가지 욕구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심미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아지고,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욕구 및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령이 많아지고 외모에 만족할 경우 안정된 자아개념이 정착되면서 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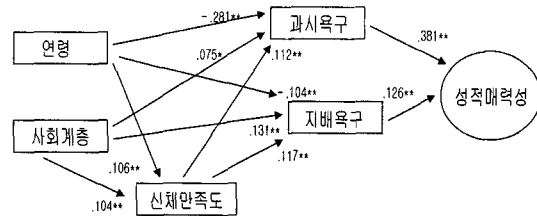
*p<.05, **p<.01

<그림 3>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의 심미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행에는 사회계층과 과시, 지배, 성취욕구(-)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3.6%였다. 즉 사회계층, 과시 및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착용시 유행을 더 고려하였다. 유행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그림 3>을 볼 때 과시욕구와 지배욕구는 연령과 사회계층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았으나 성취욕구는 연령(-)에 의해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를 통해서 과시, 지배, 성취욕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행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회계층은 유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연령이 적고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과시 및 지배욕구가 높은 여성은 유행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았고, 연령이 많고 성취욕구가 높은 여성은 유행을 덜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영숙, 김민자, 1984; 조필교, 구은영, 1986)에서 나이가 젊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지배성이 강하면 유행에 대한 관심과 패션리더십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적매력성에는 과시욕구와 지배욕구만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2개 변인의 설명력은 22.6%였다. 성적매력성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그림 4>를 볼 때 과시욕구와 지배욕구는 연령(-), 사회계층, 신체만족도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성적매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를 통하여 과시 및 지배욕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적매력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연령은 과시 및 지배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연령이 낮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p<.05, **p<.01

<그림 4> 성적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아지면서 의복착용시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였다. 또 연령과 사회계층이 높으면 신체만족도가 높아지고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아지면서 성적매력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여성의 신체만족도,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요구도 및 의복태도와 관계를 밝히고, 성형요구도와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피험자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10~40대 여성 813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신체부위별 성형요구도 순위는 1위가 점? 흉터 제거수술, 2위가 치아교정, 3위가 하반신 지방흡입술, 4위가 쌍꺼풀 수술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때 20대 전반은 다른 연령층보다 지방흡입술의 요구도가 더 높았고, 40대는 성형요구도가 가장 낮았다. 의복의 심미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유행과 성적매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매력성은 20대 여성이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4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유행과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사회계층에 따라 성형요구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복태도는 차이를 보여 상류층은 중류 및 하류층보다 의복의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성형요구도와 부적 관계, 의복태도와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여성의 지배욕구는 모든 성형요구도와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과시욕구는 얼굴성형, 지방흡입술의 요구도와 정적 관계가 있었다. 성취욕구는 문신 및 유방성형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성취, 지배, 과시욕구와 자아존중감은 의복의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성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모든 성형요구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외모향상을 위하여 의복의 심미성, 유행,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지만 성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배성이 높을수록 의복흥미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정하신, 이인자, 1983; 조필교, 구은영, 1986)와 일치하였으며,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의복흥미가 높고(정하신, 이인자, 1983), 의복의 장식성을 중요시하였다(김미경, 1990)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성형요구도와의 부정적 관계는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이경희, 1992)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성형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형요구도에는 신체만족도(-), 과시, 지배, 성취욕구(-),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연령 및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와 욕구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신체만족도,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과시 및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의복 심미성에는 성취욕구,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지배욕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욕구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미성이 높았다. 신체만족도는 욕구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연령 및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와 욕구를 통해 심미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아지고,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욕구 및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였다.

의복 유행에는 과시, 지배, 성취욕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과시 및 지배욕구와 사회계층이 높고, 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욕구를 통해, 연령 및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와 욕구를 통해 유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의복의 성적매력성에는 과시 및 지배욕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신체만족도는 욕구를 통해, 연령 및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와 욕구를 통해 성적매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의복의 성적매력성은 과시 및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과시욕구와 지배욕구에 연령은 부정적인 영향, 사회계층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은 여

성의 외모향상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시 및 지배욕구가 높은 여성은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성형요구도도 높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외모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수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충남지역의 여성으로 한정되었으며 피험자를 편의추출 하였다는 것과 성형요구도 측정에서 성형을 이미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을 구분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10대 전만 사춘기 청소년부터 50대 이상의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비교분석 함으로써 외모향상태도의 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미용성형을 개인의 배경이나 사회심리적 특성과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경자. (1994). 의복의 정숙성,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II): 기본 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180-188.
- 강혜원. (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연세논총*, 11, 349-374.
- _____. (1999). *의상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 권순기. (1990). *남성 유행학신자의 의복행동과 라이프 스타일 특성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경. (1990). *의복착용자의 욕구 및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련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영. (1982).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 불만족과 관련변인 연구: 자아수용성과 자·타위주의 의복착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207-208.
- 김영숙, 김민자. (1984). 기혼녀의 패션리더십에 관한 연구: 사회참여도, 대중전달매체 이용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패션리더십. *한국의류학회지*, 8(2), 11-17.
-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경, 이명희. (1992). 의류광고에 대한 평가, 유행몰입 및 사회적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31-

- 45.
- 김희창. (1998).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집단 수용이 의복행동이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미경. (1983). 청년기 여성에 있어서 변화지향태도와 사회경제 수준에 따른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화자. (1985). 여고생의 욕구와 의복행태간의 관계연구: 부산시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찬부. (1980). 의복행태와 욕구와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대학연구소 논문집, 8, 125-151.
- 심소연, 강혜원. (1983). 여고생의 의복행태와 과시 및 자율 욕구와의 상관 연구: 의복의 과시성, 유행, 교복자율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53-60.
- 안귀덕. (1992). 한국 청소년의 여자 활동과 이탈행동. 한국 청소년문화 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양계민. (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희. (1992).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실, 강혜원. (1978).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서울의 가정주부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79-86.
- 이남순. (1989). 유행 수용 역할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두형, 장충현. (1994). 이두형, 장충현 (1994). 미용성형의 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138-1147.
- 이명희. (1983).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87). 기혼여성의 외모만족도와 의복행태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1, 177-193.
-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태 및 모방행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윤, 강혜원.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태와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 이은숙, 서경희. (1999).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울산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문집, 1(1), 79-92.
- 이은실. (2000). 남성의 성 지향 및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의복행태와 외모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주. (1982).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태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자. (1978). 주부들의 의상가치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2, 63-75.
- 이화연. (1987). 유행선도력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남. (1985).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 및 신체충실지수와 의복행태와의 관계. 상지대학교 논문집, 6, 387-408.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하진, 이인자. (1983). 의복선택변인과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1), 27-36.
- 조필교, 구은영. (1986). 패션리더쉽과 자신감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2), 51-57.
- 차진희. (1994). Body Image, Genderlogy, 의복성 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대전, 충청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 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정규. (1968). 욕구진단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Behling, D. (1985). Fashion change and demographics: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4(1), 18-24.
- Cash, T. F., Winstead, B. A., &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20(4), 30-37.
- Creekmore, A. M. (1963).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_____.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self* (Report No. 239).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cited by MacGillivray, M. S., &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43-49.
- Humphrey, C., Klaasen, M., & Creekmore, A. M. (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 Hurlock, E. 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New York: Arno Press.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23(2), 94-118.

- McLean, F. 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cathexis and to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State University.
- Richards, E. A., & Hawthorne, R. E. (1971).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190-194.
- Roach-Higgins, M. E., Eicher, J. B., & Johnson, K. K. P. (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Tigert, D., Ring, L., & King, C. (1976). Fashion involvement and buy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46-52.
- Tucker, L. A. (198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matotype and body cathexis of collage males. *Psychological Report*, 50, 983-989.